자원회수시설 노동자 혈중 다이옥신 베트남전 군인의 3배

1급 발암물질

2021년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쓰레기 소각장 노동자들의 건강실태에 따르면, 10명의 노동자 혈액에서 1급 발암물질인 다이옥신이 평균 1.455ppt 검출됐다. 이 물질은 베트남전 당시 살포된 고엽제(2378-테트라클로로다이벤조 다이옥신)의 주요 성분으로, 노동자들의 다이옥신 혈중 농도는 베트남전 참전 군인보다 2~3배나 많게 나타났다. 소각장 내부 상층부의 표준공기도 1㎥당 0.989pg(피코그램)의 다이옥신이 검출됐다. 이는 환경부 기준치를 65% 초과하는 수치다. 또 다른 1군 발암물질인 벤조피렌도 세계보건기구 기준치의 44배나 검출됐다. 전문가들은 이와 같은 결과를 소각장 밖으로 배출되는 연소가스의 엄격한 기준과 달리 내부에는 마땅한 기준이 없는 까닭으로 지적하고 있다.

각종 재해

고용노동부 분류상 환경기초시설은 위생시설에 포함된다. 최근 5년간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종에서의 산업재해를 살펴보면, 재해자 6,336명 가운데 사망자는 151명에 달한다. 화재, 끼임, 절단 등 수많은 안전사고가 환경기초시설에서 발생하고 있지만, 환경기초시설 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이나 안전대책에 대한 사회적 논의는 드문 상황이다. 업무상 질병 또한 인과관계의 입증이 어려워 산재신청을 하는 노동자도 적다. 1급 발암물질로 알려진 다이옥신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작업환경 측정 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으며, 노동자들의 건강영향조사가 정기적으로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위해성을 규명하기도 어려운 현실이다.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종 노동자 산업재해 현황(단위:건)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재해자수	사고	1003	1102	1096	1161	1097
	질병	130	183	177	207	180
	계	**1133**	**1285**	**1273**	**1368**	**1277**
사망자수	사고	23	17	15	19	23
	질병	9	11	9	14	11
	계	**32**	**28**	**24**	**33**	**34**

<출처 :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 산재보상 승인자료 기준.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쓰레기 수집 및 처리업, 분뇨수거 및 처리업 등)>

화재위험

환경기초시설은 구조적으로 화재 사고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대량 폐기물에서 발생하는 가스가 자연 발화를 일으키기 때문이다. 소방청 집계 기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위생시설에서 일어난 화재는 678건에 달했다. 이 중 폐기물처리시설은 251건, 폐기물재활용시설은 298건이었다. 소방청에 접수되지 않은 화재를 감안한다면, 실제 더 많은 화재가 발생하는 셈이다. 그런데도 많은 자치단체에서 자원회수시설의 지하화를 추진 중이다. 현재 441개 소각장 중 지하화 시설은 하남시뿐이지만, 서울시를 포함한 다수 지자체에서 신설되는 소각장의 지하화를 고려하는 중이다. 이에 대한 노동계의 우려는 매우 크다. 유해물질뿐 아니라, 화재위험까지도 노동자에게 떠안긴다는 이야기다.

환경기초시설 화재 발생량(단위:건)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위생시설	118	136	142	142	140
폐기물처리시설	50	46	56	52	47
폐기물재활용시설	44	60	58	69	67
양수장·정수장	3	7	7	5	6
분뇨시설	13	10	4	5	13

<출처 : 소방청, 위생시설(폐기물처리시설, 폐기물재활용시설, 양수장, 정수장, 분뇨시설, 화장장, 기타위생시설 등)>